

5G로 언제 어디서나... 이통사 클라우드게임 선점 경쟁

LG U+, 엔비디아와 맞손
'지포스나우' 출시... 무료체험

SKT-MS, 공동사업 추진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선보여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을 맞아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새 먹거리 클라우드 게임 분야 진출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지포스나우'를 출격하는데 이어 SK텔레콤도 마이크로소프트(MS)와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4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양사의 협력 계획을 공개하고 내달부터 함께 한국에서 시범 서비스에 돌입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기술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이하 '엑스클라우드')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카림 초우드리 클라우드 게임 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클라우드 게임은 기기에 게임을 내려받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다. 서버 자체에서 계



지난 6월 세계 최대 게임 박람회 'E3 2019'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왼쪽) 마이크로소프트 필 스펜서 게임 총괄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이 구동되는 만큼 저사양 기기에서도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지닌 5G 등의 통신망만 있으면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게임의 미래'라 불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 4월 말 발표한 리포트에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억8700만 달러(약 4700억원)에서 2023년 25억 달러(약 3조400억원)로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이 선보인 엑스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의 고화질·대용량 게임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설치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만난 뒤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 ICT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서 짝이 났다. 이후 지난 6월 'E3 2019'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과 마이크로소프트 필 스펜서 게임 총괄 부사장이 만난 가운데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클라우드'의 한국 내 독점 사업 운영 파트너로 활동한다. 양



SK텔레콤 모델들이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사는 SK텔레콤의 5G 리더십 및 네트워크 경쟁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기술 역량을 결합,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내달부터 SK텔레콤의 5G·LTE 고객 체험단에 '엑스클라우드' 시범 서비스를 하고, 향후 대상을 타 이통사 고객에게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엔 무선 컨트롤러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사용법은 '엑스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앱 실행 시 나타나는 게임들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게임을 골라 즐기면 된다. 양사는

'엑스박스'를 통해 출시한 인기 게임 중 모바일로 즐기기에 좋은 일부를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클라우드 게임은 음원·동영상과 달리 단순한 콘텐츠 제공을 넘어 수많은 이용자의 조작에 실시간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고속·초저지연 통신과 넉넉한 서버 용량이 중요하다. 양사는 SK텔레콤의 5G 경쟁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국내 리전이 '엑스클라우드'를 위한 최적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전은 복수의 데이터센터가 구축된 지역을 말한다.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은 "클라우드·게임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전 세계 이통사 중 최초로 5G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SK텔레콤의 협력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차세대 모바일 게임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유플러스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 글로벌 사업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나우' 무료 체험을 실시하며, 5G 네트워크 기반 클라우드 게임의 신호탄을 쏘았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실수 반복안해... 인프라 혁신에 매진”

황창규 KT회장, 기자간담회

“잠깐의 방심, 자만으로 야한 화재라는 상처를 남겼다. 과오를 딛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역량과 기술력을 결집해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4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한 화재를 언급하며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을 이루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야한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해 일대의 통신과 금융이 마비되는 '대란'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은 1만 3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황 회장은 “KT는 134년의 통신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230개의 통신구, 79만개의 맨홀, 464만개의 통신구를 포함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완벽하게 운용하는 것도 KT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황 회장은 5세대(5G) 이동



4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 KT OSP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인프라 혁신기술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황창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

통신과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을 접목한 OSP(외부 통신시설)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네트워크 운용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KT가 공개한 OSP 이노베이션에서는 통신 인프라 설계부터 관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OSP 관리시스템 '아타카마', 새로 개발한 화재감지 기술 등이 시연됐다.

/대전=김나인 기자

LGU+ 통합 로밍요금제 '제로' 10종 출시

LG유플러스가 국가별 로밍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시킨다.

LG유플러스는 4일 통합 로밍 요금제 '제로(제로로 로밍하자)' 10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요금제명 간결화 ▲음성발신 무상 제공 ▲데이터 혜택 확대 ▲이용가격 인하를 골자로 로밍 서비스를 개편했다.

'제로 프리미엄'은 해외 65개 주요국

에서 일 1만3200원(부가세 포함)으로 데이터, 음성 수·발신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로밍 요금제다.

데이터는 '함께쓰기' 용도로 일 5기가 바이트(GB)를 따로 제공해 1명만 요금제에 가입해도 동행자와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다. 올 연말까지 U+5G 요금제 4종에 가입하는 고객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동승자 위한 기능추가 '패밀리카 최강자'

기아차, 2020년형 카니발 출시
2열 통풍시트, 11인승 가솔린 모델

패밀리카 시장의 최강자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이 연식변경을 통해 뒷자리 동승자를 위한 기능을 대폭 추가했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상품성을 강화한 2020년형 카니발(사진)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2020년형 카니발은 ▲2열 통풍시트, 세차장 진입 가이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신사양 ▲하위 트림을 확대하고 11인승을 추

가한 가솔린 모델 ▲합리적 가격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9인승 모델에 탑재된 '2열 통풍시트' ▲기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에 추가된 '세차장 진입 가이드' ▲2열에서 시정 가능한 모니터인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커스터마 이징 '듀온' 적용 시)' 등 새로운 사양을 2020년형 카니발에 적용해 프리미엄 패밀리카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특히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그동안 혼다 오딧세이 등에 적용된 것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패밀리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어 가솔린 모델의

경우, '프리미엄'

단일 트림으로

영하던 7인승 모

델에 하위 트림인

'VIP'를 추가하

고 '노블레스 스

페셜'과 '노블레스'로 운영했던 9인승 모델에서 '노블레스'를 빼고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를 넣어 트림 경쟁력을 높였으며 11인승 가솔린 모델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0년형 카니발은 기존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은 가솔린 3.3 엔진, 디젤 모델은 디젤 2.2 엔진으로 운영된다.

2020년형 카니발의 가격은 ▲7인승 가솔린 모델이 VIP 3426만원, 프레지던트 3799만원 ▲7인승 디젤 모델이 V IP 3672만원, 프레지던트 4045만원 ▲9인승 가솔린 모델이 프레스티지 326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660만원 ▲9인승 디젤 모델이 럭셔리 3150만원, 프레스티지 349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890만원 ▲11인승 가솔린 모델이 프레스티지 3160만원 ▲11인승 디젤 모델이 디럭스 2880만원, 프레스티지 33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B, 타겟팅 광고 송출시스템 구현

SBS와 TV광고 사업협력 협약

SK브로드밴드는 SBS(SBS, SBS 플러스, SBS M&C)와 SBS 북동방송센터에서 TV광고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객별 타겟팅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현해 나간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TV(IPTV) 사업자 최초로 지상파 방송사와 TV광고 영역에서

의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구 단위 타겟팅 광고 서비스 '스마트빅 A D'를 SBS Plus 채널(SBS Plus, SBS FunE)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채널(SBS Plus, SBS FunE)을 시청하는 모든 B tv 고객에게 실시간 맞춤형 상품 TV광고를 제공하고, 고객별 선호할 만한 상품광고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고 회

사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시간에 SBS Plus 채널(SBS Plus, SBS FunE)을 시청하고 있는 고객 중 골프를 취미로 하는 가구에는 골프용품, 어린이가 있는 기혼자 가정 가구에는 베이비·키즈용품 등 B tv 고객의 지역과 라이프스타일 취향 등을 분석해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 세그먼트 별 광고를 편성·노출하는 것이다. 향후 양사는 SK브로드밴드의 매체운영, SBS의 광고기획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나인 기자